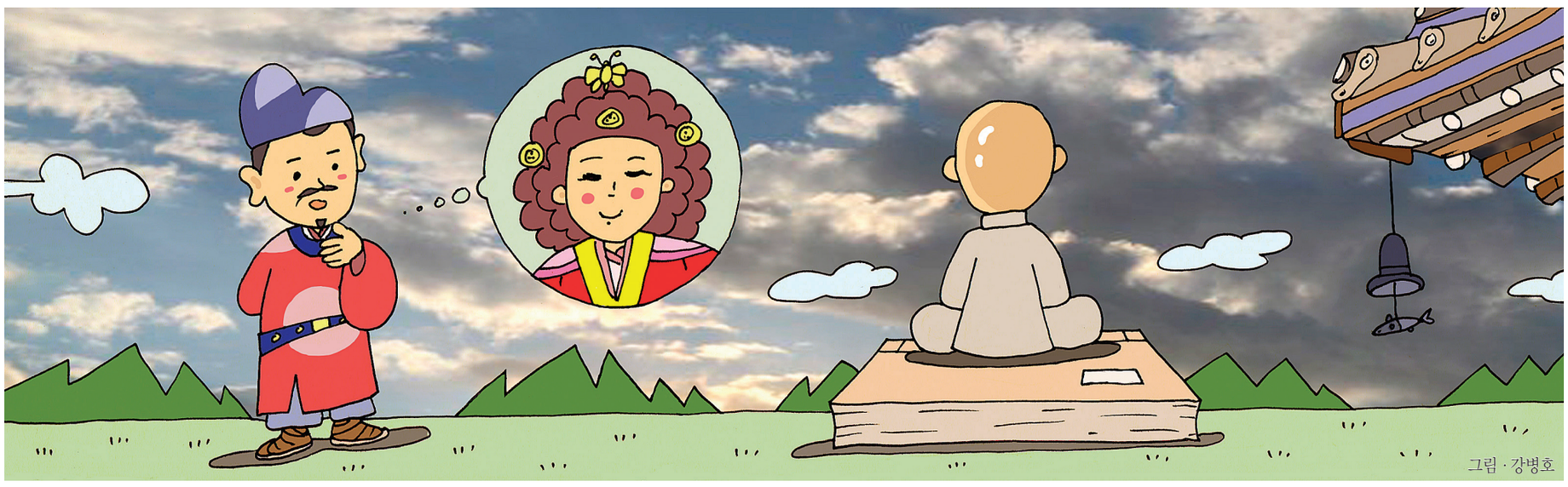
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❸ 〈석보상절〉 속 훈민정음 대사전



▶ 한줄요약
〈석보상절〉 서문을 살펴봤다. 〈석보상절〉 서문에는 편찬 목적이 확인된다. 백성들이 불교를 더욱 깊이 알았으면 하는 세종의 애민과 소헌왕후의 극락왕생을 바라는 발원이 담겼다.

장엄한 불교와 훈민정음 향연


그림 · 강병호

〈석보상절 서〉의 사전적 풀이

부처께서 삼계의 높은 분이 되어 계셔서 중생을 널리 제도하시니

그지없어 못내 헤아릴 공과 덕은

사람들과 하늘들이 내내 (다) 기리지 못하는 바이시다.

지난 글에서 서문의 첫 문장을 읽어보았다. 이 〈석보상절 서〉에는 훈민정음 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협주(夾註)'가 등장한다. 내가 처음 영어 알파벳을 배우고 단어를 공부했을 때를 생각해보자. 먼저 '서(序)'라는 훈민정음 단어의 뜻이 궁금하지 않은가.

석보상절 서(釋譜詳節序)의 '序는 글 밍ᄀᆞ론 ᄠᅳ들 子細히 써 後ㅅ 사ᄅᆞᄆᆞᆯ 알의ᄒᆞ논 거시라'

'서는 책을 만드는 뜻을 자세히 써서 나중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

누가 이보다 더 친절하고 쉽고 간결하게 정의할 수 있는가. 이것이 '석보상절 훈민정음 사전'의 위엄이다. 그 다음 첫 한문 문장은 이렇게 시작하였다.

佛이 爲三界之尊ᄒᆞ샤

'佛은 부톄시니라 爲논 ᄃᆞ외야 겨실씨라 三界논 欲界 色界 無色界라 之논 입겨지라 尊은 노ᄑᆞ신 부니시니라 ᄒᆞ논 ᄠᅳ디라'

불(佛)은 부처이시다. 위(爲)는 되어 계시는 것이다.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이다. 지(之)는 소유격을 나타내는 어조사이다. 그리하여 '부처께서 삼계의 높은 분이 되어 계셔서'라는 유려한 21세기 현대 국어로 탄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는 '부처'이다. '부처님'이라고 쓰지 않았다. 당시 훈민정음을 표기는 '부텨'라고 썼다. 지금 우리가 'Buddha'를 '붓다'라고 표기하고 '붓다님'이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다. 부처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산스크리트 원어에 가까운 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자로는 '佛(불)'이다. 15세기에 지금보다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 이루어진 셈이다.

한편 이러한 방식으로 풀이한 '중생(衆生)'이란 말도 예사로 들리지만 세종 시대에 '중생'은 짐승을 뜻했다. 그 말의 의미가 넓어져 인간을 포함한 살아 있는 '유정(有情)'을 뜻하게 되었다. '유정'은 '무정(無情)'에 상대되는 말로, 중생이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을 총칭한다면 유정은 감정과 의식이 살아 있는 존재(sattva)를 의미한다. 무정은 산천초목같이 마음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중생'은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이나 진제(眞諦, 499~569) 삼장(三藏) 때 번역이고, 〈서유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현장 법사(602~664)가 '유정과 무정'으로 번역했다고 한다. 이처럼 훈민정음으로 지어진 글을 읽다 보면 그동안 전혀 생각지 않고 살던 모국어의 뿌리와 의미의 변화 등을 알게 되는 직관력이 증폭되어 가외로 즐겁다. 그러나 이렇게 사전적 정의인 협주를 풀이하다 보면 본문 내용이 저만치 가있어 그다음 본문과 연결이 어렵다. 언젠가 '석보상절 대사전' 출간을 발원하며 이제부터는 풀이를 본문에 녹여가며 석보상절 편찬의 동기를 읽어가기로 한다.

불교를 깊이 있게

世之學佛者ㅣ

()世間애 부텻 道理 ᄇᆡ호ᅀᆞᄫᆞ리

鮮有知出處始終ᄒᆞᄂᆞ니

()부텨 나아 ᄃᆞ니시며 ᄀᆞ마니 겨시던 처ᅀᅥᆷ ᄆᆞᄎᆞᄆᆞᆯ 알리 노니

雖欲知者ㅣ라도

()비록 알오져 ᄒᆞ리라도

亦不過八相而止ᄒᆞᄂᆞ니라

()ᄯᅩ 八相을 넘디 아니ᄒᆞ야셔 마ᄂᆞ니라

세간의 부처 도리를 배우려고 하는 이가 (있어도)/부처 태어나 다니시며(활동) 가만히 계시던(임종)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는 이가 드무니/비록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도/ 또 팔상도에 나오는 그림을 넘지 못하고 마느니라.

이제 〈석보상절〉을 쓰게 된 본론이 나온다. 때는 1447년이다. 기억을 더듬어보자. 학창 시절 열심히 외운 실력, 훈민정음이 언제 만들어지고 반포되었는지를…. 1443년 세종 즉위 25년에 문자를 만들고 시험 삼아 1445년에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지어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1446년 9월 상한(上澣) 곧 양력으로 10월 9일쯤 반포하였으니, 우리는 그날을 지금 '한글날'이라 부른다.

그리하여 훈민정음으로 쓴 첫 번째 산문책,

"부처님 가르침 구하는 사람도 팔상도만 이해" 서문서 지적해
월인석보 · 석보상절 읽다보면
신미대사 · 김수온 채취 느껴져

1447년 음력 7월에 무려 24권짜리 방대한 〈석보상절〉의 그 서문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다. 훈민정음 반포 후 채 1년도 못 되어 완성한 24권짜리 책.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0개월 만에 24권짜리 전집을 완성한다는 것이 대체 가능한 일인가.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다빈치 코드'이다.

두 번째 '다빈치 코드'는 조선이라는 세상에서 훌륭한 부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부처가 태어나서 살아가며 열반에 드실 때까지 상세히 아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는 구절이다.

원문 '알리노니'는 15세기 국어로 '아는 사람이 드물다'는 옛말이다. 처음 이 글을 독학으로 읽었을 때 훈민정음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아 '알리노니'로 붙여서 읽었다. 부처의 생애 처음부터 끝까지 석보상절로 '알리노니'라는 뜻인 줄 알았다. 우리는 여기서 잊혀져 가는 '드물어서 귀하다'라는 뜻의 정말 귀한 '놀다'라는 우리말을 새롭게 만난다. 모국어의 능력이 증폭되는 즐거운 〈석보상절〉 독서. 비록 부처의 가르침을 더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도 겨우 '팔상도'에 그려진 여덟 가지 그림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서 그치고 만다는 것이다.

소헌왕후의 극락왕생

무엇인가 이상하지 않은가. 이때가 어느 시대라고. 바로 조선시대이다. 불교가 국교였던 통일신라나 고려시대가 아니다. 조선은 '유교(儒敎)'를 국시로 삼고 억불숭유(抑佛崇儒) 정책을 펼쳤다고 귀가 따갑게 듣지 않았던가. 심지어 세종은 삼국시대 이래 고려시대 불교를 대표하는 다섯 가지 교종과 아홉 산문에 자리 잡았던 선종, 5교 9산을 혁파하고 선교 양종으로 불교를 대폭 축소시킨 주인공이다. 그런 세종이 다음과 같이 말하며 세조가 왕자였던 수양대군 시절 〈석보상절〉을 짓고 서문을 쓰게 한 사실이 〈월인석보〉 서문에 자세하다.

세종께서 나(수양대군)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천(推薦, 세종의 왕비 소헌 왕후 극락왕생 기도)이 경전을 옮겨 쓰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으니 네가 석보를 만들어 번역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였다.

이것이 조선 왕실의 양면성이요, 진심을 담은 세종의 육성이다. 다음 구절은 수양대군의 목소리로 쓴 〈석보상절〉의 출간 목적이다.

頃에 因追薦ᄒᆞᅀᆞ바

近間애 追薦ᄒᆞᅀᆞᄫᆞᄆᆞᆯ 因ᄒᆞᅀᆞ바

爰采諸經ᄒᆞ야

이저긔 여러 經에 ᄀᆞᆯ히여내야

別爲一書ᄒᆞ야

各別히 ᄒᆞᆫ 그를 밍ᄀᆞ라

근래에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이때까지 (나온) 여러 경전에서 가려내어/ 각별히 한 책을 만들어

소헌왕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세종의 부인이자 수양대군의 어머니이다. 일찍 세상을 떠난 소헌왕후를 위하여 남편과 아들이 극락왕생을 비는 것이 어쩌면 이 책을 출간한 직접 이유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든 기간은 1년이 채 안 됐지만 책을 얼렁뚱땅 만든 것이 아니다. 조선시대까지 유통되고 가장 많이 회자된 불교 경전,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경 · 율 · 론' 삼장을 망라하여 엄선 또 엄선한 요체들을 모아서 '각별히' 만든 책이다.

〈월인석보〉 서문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12부 수다라를 섭렵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 12부 수다라는 12부경이라고도 하는 석가모니의 교설을 12가지로 분류한 경전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세종 또는 세조가? 물론 이 두 왕도 불교에 조예가 깊고 세상이 다 아는 박학다식한 천재들이다. 그러나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정독을 하다보면 〈석보상절〉 뒤에는 김수온의 체취가 느껴지고 〈월인석보〉 뒤에는 신미 대사가 서 있는 모습이 느껴진다. 그것은 1462년 간경도감에서 '능엄경언해'를 만들 때 세조가 구결을 달고 김수온과 신미가 번역을 했다는 사실에서도 뒷받침 된다.

김수온은 신미 대사의 동생으로 1446년 '증수석가보(增修釋迦譜)'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다. 〈석보상절〉보다 훨씬 자세하고 철학적인 〈월인석보〉에는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들인 왕자와 왕들이 스승으로 추앙해 신하들의 질시를 한 몸에 받았던 신미 대사의 자취가 남아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신미 대사에 대해서는 구전과 속리산 법주사와 복천암, 충북 영동 김씨 가문 등에 내려오는 일화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그와 반대로 간사한 승려로 매도되고, 기록을 찾아서 삭제라도 한 듯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갈수록 흥미진진해지는 훈민정음과 그 문자로 지어진 〈월인석보〉의 세계!

〈석보상절〉의 서문 두어 구절만 읽었을 뿐인데 이렇게 도도하고 장엄한 불교와 훈민정음의 향연이 펼쳐진다. 과연 이번 생에 다시 없을 이 아름다운 경전을 읽지 않고 어이하리.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킴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2인, 4인, 6인용)
정원난방산업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www.garden-heating.com
문의 010-3267-1263

신 화 불 사
매 물 안 내
법 당 이익공 27평 ····· 3,000만원
요사채 초익공 ㄱ자집 33평 ····· 3,000만원
대중간 초익공 45평 ····· 4,500만원
사주문 7포 약 10평 ····· 2,000만원
위 사찰 제목은 다른 장소로 옮겨 지으려
정성을 다해 철거했으나
부득이 철거 비용도 안되게 처분하오니
필요하신 분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화불사 합장
☎ 010-6545-2020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신간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